

연구원 소식

전주 기자촌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에 따른 기록화 사업 용역 시행

우리 연구원 이정욱 운영위원(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이 연구 책임자로 전주 기자촌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에 따라 해체, 재개발되는 마을 기록화 사업 용역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에 위치한 기자촌은 지난 2009년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2020년 사업시행이 최종 인가되어 공동주택 2300여 세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전주시 조례에 따라 지역 재개발 사업 시 필수적으로 해체되는 마을의 역사화를 위해 기록화 사업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번에 우리 연구원이 기자촌 지역의 기록화 사업 용역을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 주택재개발 사업으로 분해된 마을 기록화를 통한 지역사의 역사화
- 마을 주민들의 생활·문화사와 마을의 형성 및 공동체 활동 채록
- 도시화에 따른 지역 공간 및 공동체의 변화를 추적 분석

위와 같은 목적을 두고 시행되는 이번 기록화 사업을 통해 해체되는 마을이 공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록으로 남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기자촌 지역의 기록물을 소장하고 계시거나 마을의 역사를 구술하실 수 있으신 회원께서는 연구원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역사 속의 오늘

저울처럼 평등한 세상을 꿈꾸다 - 1923. 04. 25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지속된 일제 강점 기간 내내 이 땅의 민인들은 제국주의로부터 민족모순과 피압박계급의 계급모순을 동시에 타파하기 위해 분투했다. 오늘 이야기 될 "형평운동"은 피압박계급 가운데서도 가장 말단에 위치한 백정들의 피어린 싸움과 관련된 것이다.

근세기들어 벌어진 평등사회를 지향하는 민인들의 가장 대표적인 보기가 1923년 4월 경남 진주에서 일어나 1935년까지 유지된 형평사(衡平社)의 활동을 일컫는 형평운동이다. 이 땅의 역사와 동시에 가장 오랫동안 천민중의 천민으로 차별을 받아온 백정(白丁)들의 인권 존중과 평등 대우를 주장한 사회 운동이었다. 그 말에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또 대대로, 온갖 차별과 멸시를 감내해야 했던 백정들의 작업 도구인 "저울처럼 평등한 사회를 만들려는 사회운동"이라는 의미였다.

이러한 형평운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 일차적으로 그것은 그 시대 백정의 사회적 위치나 차별 대우에서 기인하였을 것이다. 1920년 당시 진주의 인구가 2만4천여명이었고, 그 중에서 약 350명 정도의 백정들이 살고 있었다. 1894년 갑오개혁으로 봉건적 신분제도는 철폐되었으나 백정에 대한 사회적 차별은 여전히 지속되었고, 일제 식민 지하에서도 이러한 상황은 전혀 변함이 없었다.

물론 형평사가 만들어진 배경을 백정 차별 문제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보다는 오히려 형평운동의 역사적, 사회적 조건에 대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것은 형평운동이 특별히 진주에서 시작된 배경으로 진주의 사회적 조건에 대한 이해를 요구한다. 1920년대 초 진주에는 각 부문에서 직업적 운동가들이 주도한 민중운동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었다. 특히 진주청년회 중심의 청년운동, 진주노공이 이끌어간 노동, 농민운동, 각 종교단체와 연관되어 전개되었던 여성운동이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역사적으로 1862년에 일어난 진주민중항쟁을 계기로 진주의 정치·문화적 바탕이 조성되었고, 갑오농민전쟁 때에도 농민군의 활동이 비교적 활발했던 지역이기도 하다. 이러한 사회적·역사적 조건을 바탕으로 하여 형평운동을 결정적으로 가능하게 했던 요인은 백정사회에 축적된 경제적 지원이었다. 전통적으로 백정들은 일반인들이 꺼려하던 도살업, 고기판매업, 유기제조업 등 특수한 직종에서 일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는 일반인들로부터 심한 차별대우를 받고 있었지만 경제적으로는 오히려 많은 경제력을 쌓아가고 있었고, 19세기말부터는 도살업이나 고기판매업이 재물을 모으는 중요한 수단으로 바뀌어갈 정도였다. 그리하여 1920년대 초 상설시장으로 자리를 잡아가던 진주 공설시장에서 가게를 갖고 있던 비교적 경제력이 있는 백정 상인들이 형평사를 만드는데 적극 참여하여 실무적인 임원을 맡게 되었다.

1923년 4월 25일 진주극좌(현 진주극장)에서 열린 형평사 발기총회에서 강상호, 신현수, 천석구, 장지필, 이학찬 등이 위원으로 선출되었다. 강상호, 신현수, 천석구 등은 비 백정으로서 진주지역의 사회운동을 이끌었던 지식인 출신의 직업적 운동가들이었고 장지필, 이학찬은 백정의 후예로 장지필의 경우 일본에서 유학하고 난 뒤 형평운동에 뛰어들었고 이학찬은 진주공설시장서 고기판매업을 통해 상당한 경제력을 갖고 백정사회를 지도하던 인물이었다.

이 밖에 간사, 이사, 재무, 서기의 실무 부서를 맡은 사람들은 모두 백정 출신으로 어느 정도 경제력을 축적하고 있던 사람들이었고, 대부분 형제나 같은 집안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볼 때 초기 형평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직업적 운동가들과 백정사회의 지도자들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이날 채택한 창립선언문에서 운동의 성격을 명확히 드러냈다.

“공평은 사회의 근본이요 애정은 인류의 본량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급을 타파하며, 모욕적 칭호를 폐지하며, 교육을 장려하여 우리도 참사람이 되기를 기약함이 본사(本社)의 주지(主旨)이다. 오늘 조선의 우리 백정은 여하한 지위와 여하한 압박에 처하였는가? 과거를 회상하면 종일 통곡의 피눈물을 금치 못할 바라. 이에 곡절과 조건 문제 등을 제기할 여가도 없이 목전의 압박을 절규함이 우리의 실정이요, 이 문제를 선결함이 우리의 급무로 인정할 것은 적확한 지라. 낮으며 가난하며 열등하며 약하며 천하며 굴종하는 자 누구인가? 슬프다! 우리 백정이 아닌가! 그런데 여차한 비극에 대한 이 사회의 태도는 여하한가? 고위 지식 계급에서 압박과 멸시만 하였도다. 이 사회에서 우리 백정의 연혁을 아는가 모르는가? 결코 천대를 받을 우리가 아닐지라. 직업의 구별이 있다 하면 금수(禽獸)의 목숨을 뺏는 자가 우리 백정뿐이 아닌가 하노라. 본사(本社)는 시대의 요구보다도 사회의 실정에 응하여 창립되었을 뿐 아니라 우리 조선민족 이천만 중의 한사람이라도 애정으로써 상호 부조하여 생활의 안정을 꾀하며 공동의 존립 책을 꾀하고자 이에 사십 여만이 단결하여 본사를 세우고 그 주지를 천명해 표방코자 하노라.”

99년이 지난 오늘 형평사의 창립선언문에 ‘백정’이라는 단어 대신 여전히 이 땅에서 차별 받고 있는 이들의 이름을 대신 넣는다 해도 어색하지 않을 것이다. 장애와 비장애, 성별과 노동자성, 수직적 갑을관계, 청소년, 성소수자... 사회적 약자라 불리는 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저울처럼 평등한 세상을 만들 의무가 아직 우리에게 있다.